

주체혁명위업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력사의 길을 따라 최후승리를 이룩하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90돐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광복의 천리길답사길을 열어주신 40돐에 즈음하여

우리는 지금 흰눈덮인 만경대의 나지막한 언덕에 서있다. 잊지 못할 력사의 지점에서 우리는 조국과 민족앞에 승고한 맹세를 다지시며 혁명의 천리길에 나서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을 경건히 우러른다. 기승을 부리는 뱀뱀 눈보라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혁명의 발걸음을 합치게 내디디시는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동지!

알짜기 조국해방의 끈튼을 풀으시고 10대의 나이에 혁명의 천리길에 나서신 우리 수령님이다.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아버지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떠나시던 력사의 그날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랴.

세기와 세기를 이어 어느덧 세월은 90년이라는 년륜을 아로새기었다. 그러나 아버지수령님께서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은 고난과 시련을 뚫고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강성변영의 찬란한 미래를 대를 이어 걸어갈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변영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준 력사입니다.》**

류폐없이 암담하였던 비운의 그날들이 추억의 물결을 타고 파도 치른다. 배운 천리길을 걸으시어 조국에서 두해를 보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덕학교졸업을 몇달 앞둔 어느날 아버지님께서 또다시 일제경찰에 체포 되시었다는 천만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시었다.

아버님의 원수, 우리 일제의 원수, 조선민족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사생결단을 해야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다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체없이 광복의 천리길에 나서시었다.

력사의 그 겨울날은 사나운 칼바람에 얼어붙은 대지마저 몸부림치던 때였다. 그때따라 눈이 얼마나 많이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어갈 혁명의 천리길

오고 바라는 또 어찌나 새차게 불었던지 누구나 선뜻 집문밖에 나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있었다. 가셔야 할 천리길중 절반이상만 무인지경이었다.

길고걸어서도 새 고개와 연방 나라나는 협산준령,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북방의 산악지대, 무쇠다리를 가졌다는 강계포수들도 오르기 지어하는 눈덮인 오가산과 수많은 높은 병을 단신으로 넘고있던 우리 수령님께서 지나신 담대한 배방과 강의 한 의지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세한 눈보라에 거목들이 넘어지는 소리가 그칠새 없었고 때로는 맹수가 길목에서 어슬렁거리려는 위험지대도 있었다.

그러나 모진 추위와 사나운 짐승, 눈덮인 험한 산악도 우리 수령님의 발걸음을 멈추게할수 없었다.

강도 일제와 사생결단을 해야 하겠다는 불굴의 혁명정신, 한시바빠 일제에게 빼앗긴 모든것을 영원한 우리의것, 조선의것으로 만들고싶은 녀넌이그이의 발걸음에 실려있었던것이다.

모진 고생을 겪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대를 떠나 열사올째 되는 날 저녁무렵 포령나루터에 이르시었다.

세한 밤바람에 두루마기자락을 날리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을 추억할수 있게 하는것이러면 무엇이든 소중히 간직하고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시며 조약들 하나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혁명의 천리길을 같이 빛내여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만경대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적음

집어 손바닥에 감싸쥐시었다. 그러시고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며 천천히 강건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산천을 몇번이나 뒤돌아보시었다. 그때 우리 수령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시었다. 조신아, 나는 너를 떠난

다. 너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 는 몸이지만 너를 찾도록 갈수록 을 걷는다. 압록강만 건너면 남의 나 라 땅이다. 그러나 남의 땅에 간들 내 너를 잊을소냐. 조신아, 나를 기다려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때의 잊을 수 없는 심리적제해에 대하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자신께서는

그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며 조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셨다고 쓰시었다. 찬바람불어치는 두 나라 지경에서 신음하는 조국산천을 돌아보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다지신 맹세, 그것은 혁명승리에 대한 드물지 않는 신념과 불굴의 혁명정신, 담대한 배방

진두에 서계시었다. 혁명의 천리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수십성상에 이르는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혁명활동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구원 되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선 이 일떠섰으며 우리 인민의 긍지와 보람찬 생활이 마련되었다.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개척자이시

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절세의 위인상과 더불어 빛나는 혁명의 천리길을 배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더욱 즐기게 이어졌다.

끊임없는 선군혁명명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 인가 한 평을 넘으시며 하신 교시가 오늘도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길에는 대대로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만경대가문의 열렬한 조국애와 무한한 헌신성이 그대로 수놓아져있다고, 나는 이 길을 걸으며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혁명의 천리길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같이 빛내 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은 온 나라 방방곡곡에 새겨진 령도의 자욱과 더불어 더욱 빛나고있다.

혁명의 천리길에 어린 아버지수령님의 사생결단의 각오와 의지를 그대로 체현하시고 강행군의 앞장에서 천만군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이고도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온 나라에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새차게 타올랐다.

광복의 천리길은 오늘도 매일도 변함없이 이어가야 할 강성조선의 찬란한 미래와 잇닿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신념의 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9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이 시각 온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대를 이어 수령님, 장군님을 누리는 크나큰 긍지와 함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신으로 새차게 끓어번진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주체혁명 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최후의 승리에 이어나가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천출명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바라시던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야만할것이다. 본사기자 강철남

명문고개. 1월의 찬바람이 옷자락을 날리고 고개를 지키는 보조령들마냥 길길이 자란 나무의 가지들에도 흰눈이 쌓였는데 비운의 갈밭이 우리앞에 다가간다. 《명문고개여, 만대에 길이 빛나라!》

지난날 넘나들기가 너무도 힘은 천하 못 넘을 고개라고 하여 고개로 불리우던 이 명문고개가 아버지수령님께서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과 더불어 온 나라 인민은 물론 어린 학생들까지 누구나 아는 명으로, 혁명의 새 세대들의 답사행군대가 끊이지 않는 력사의 지점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동지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얼마전 우리는 개천철도국의 수송전사들과 함께 혁명의 천리길 개천혁명사적지를 참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령도자이시었을뿐 아니라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었다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었다.》**

우리가 사적지를 찾았을 때 온 장소는 눈보라천지였다. 강사들과 관리원들이 경건한 자세로 교양마당의 눈을 맑끔히 치는 모습이 보였다.

두루마기자락을 날리시며 혁명의 천리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는 우리의 가슴은 찢어질 것아들었다. 일제의 쇠고랑에 칭칭 감긴 우리 조국, 왜놈들의 총칼밑에 신음하는 2천만거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 두들긴 숨을 한번 해물리지 못했던 피스러운 이 나라 인민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험천의 고비들이 막아지고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백두전장을 주목잡으시며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니 그 은공을 무슨 말로 다 노래할수 있랴. 평평 내리는 흰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

여 명문고개는 자강도의 승원군과 전천군사이에서 있는 해발높이 809m에 달하는 매우 험한 고개이다. 나라를 빼앗긴 설움을 한탄하며 남부내대하고 조국땅을 떠나던 류랑민들의 한숨소리 그칠새 없었고 수난당한 민족의 피눈물이 너무도 많이 습배인 고개이다.

수필 | 명문고개

우리 수령님께서 이 명문고개에 력사의 자욱을 적으시던 그때도 사람들의 물결은 끊기지 않고있었다. 수난민족의 처량한 노래에 담겨져있던 눈물의 아리향고개가 후시 이 고개는 아닌지.

하찮은 생각을 하시며 고개마루에 오르면 우리 수령님께서 오레도록 발걸음을 매지 못하시

었다. 할아버님과 할머니를 비롯한 집안식구들과 동무들이 눈물속에 비레던 고향 만경대는 벌써 멀리가 있었지만 우리 수령님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뜻이 더욱 용암마냥 끓고있었다. 기어이 원수 일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안아 오시려는 결심이.

고무하일 때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호려지는 정신을 가다듬으시 며 그날의 명문고개를 생각하시

고 하시었다. 하지만 아버지수령님 걸으신 혁명의 강행군길과 더불어 오늘도 수천수만의 새 세대들의 가슴마다에 수령님의 고결한 희생과 헌신의 한평생을 되새겨주는 혁명의 고개로 높이높이 솟아

나고있다. 명문고개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친다. 이 땅에 태를 물고 사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광복의 천리길의 사연많은 고개와 평등을 잊지 말라. 최후승리의 명마루에 오르는 혁명의 믿음직한 전위투사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본사기자 백영미

제나 끈게 뻗어있었다.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던 그날을 항상 마음속에 안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협산준령을 헤쳐 넘으시며 위대한 헌신의 강행군 천리길에 걸고 또 걸으시

었다. 명문고개, 그것은 이 나라의 무수한 고개들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아버지수령님 걸으신 혁명의 강행군길과 더불어 오늘도 수천수만의 새 세대들의 가슴마다에 수령님의 고결한 희생과 헌신의 한평생을 되새겨주는 혁명의 고개로 높이높이 솟아

나고있다. 명문고개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친다. 이 땅에 태를 물고 사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광복의 천리길의 사연많은 고개와 평등을 잊지 말라. 최후승리의 명마루에 오르는 혁명의 믿음직한 전위투사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본사기자 백영미

신념의 대오 오늘도 흐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광복의 천리길답사길을 열어주신 40돐을 맞는 우리의 가슴마다에는 조선혁명의 첫 기승에서 시작된 혁명의 길, 광복의 천리길을 이 땅의 새 세대들이 대를 이어 걸도록 해주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그리움의 정이 새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청소년학생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우리 혁명의 계승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에 대한 답사길을 열어주시고 청소년학생들을 백두의 행군길을 역세기에 이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큰 규모의 답사행군대를 뜻고 행군하도록 하시었다. 답사행군대원들은 혁명의 수도 평양에 불러 참관사업을 조직하도록 하고 친아버지성으로 행군 일정을 알아보시며 직속기를 휘휘 사방의 선들로 인계주시고 위대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답사행군을 청년동맹의 전통적인 사업으로 조직행하며 뜻깊은 교장을 청소년시절의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어 수령님께서 걸으신 혁명의 천리길을 같이 빛내어나가도록 하시었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소년들이 아버지수령님께서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을 숭고히 받들어 역세기에 이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큰 규모의 답사행군대를 뜻고 행군하도록 하시었다.

지금 온 나라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끌어주시는 선군혁명의 후배대로 역세기에 자라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우리는 온 나라 청소년학생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명도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뜻깊게 이어가는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역세기에 준비시켜나 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함광철

은 나라의 학생소년들은 답사행군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광복의 천리길에 아로새겨진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눈보라사나운 협산준령도 넘으시어 사상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해갔다.

지금 온 나라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끌어주시는 선군혁명의 후배대로 역세기에 자라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우리는 온 나라 청소년학생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명도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뜻깊게 이어가는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역세기에 준비시켜나 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함광철

어린 우리는 개천철도국의 수송전사들과 함께 혁명의 천리길 개천혁명사적지를 참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령도자이시었을뿐 아니라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었다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었다.》**

우리가 사적지를 찾았을 때 온 장소는 눈보라천지였다. 강사들과 관리원들이 경건한 자세로 교양마당의 눈을 맑끔히 치는 모습이 보였다.

두루마기자락을 날리시며 혁명의 천리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는 우리의 가슴은 찢어질 것아들었다. 일제의 쇠고랑에 칭칭 감긴 우리 조국, 왜놈들의 총칼밑에 신음하는 2천만거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 두들긴 숨을 한번 해물리지 못했던 피스러운 이 나라 인민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험천의 고비들이 막아지고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백두전장을 주목잡으시며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니 그 은공을 무슨 말로 다 노래할수 있랴. 평평 내리는 흰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

영원히 높뛰는 애국애족의 숨결

여 한평생 맞으신 눈보라를 잊지 말고요 당부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앉았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강사 장영동무로부터 총합강의를 받은 우리는 정권철차와 개천역사(당시)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영역에서 생산되었다고 하는 《니기사》라는 증기기관차와 객차, 개천역사앞에서 우리는 쉬이 발걸음을 매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라시였던 그날처럼 금시라도 기계소리를 리며 달릴듯싶은 증기기관차, 키앗은 열차란...

눈겨늘수록 이 자그마한 객차에서 수난당한 인민의 비참한 정상을 보시며 애국애족의 의지와 조국을 구원할 맹세를 굳히시던 우리 수령님 모습을 뵈는것만 같았다. 단종목조건물인 개천역사에는 전화기와 편수책상, 시계와 교환대 등이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있었다.

당시의 정경을 세부로 느끼게 하는 개천역사를 돌아보고 혁명의 천리길에 수놓아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을 전하는 현시비에서 해설을 들은

우리는 서선리관에 이어 개천혁명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은 해방의 은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개천의 절도동계급과 온 나라 인민들의 백 목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주재 61(1972)년 4월 15 일에서 개관되었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청소년학생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사적관을 참관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갈 총정의 결의를 다지셨다고 한다.

사적관은 3개의 호실로 되어 있다. 1호실에는 서선리관에서 하

루밭을 주무시고 개천을 떠나시어 천리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대형미술작품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찬바람에 녹도리와 두루마기자락을 날리시며 힘차게 걸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숨결이시 모습에는 도란에 빠진 인민을 구원하고 기어이 나라를 찾

아시는 굳은 결심이 어려웠

한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천땅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시며 천리길을 이어가신 사적내용과 압록강 배두의 칼바람마냥 폭풍처럼 오신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의 불멸의 생애가 있어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강대

한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천땅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시며 천리길을 이어가신 사적내용과 압록강 배두의 칼바람마냥 폭풍처럼 오신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의 불멸의 생애가 있어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강대

한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천땅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시며 천리길을 이어가신 사적내용과 압록강 배두의 칼바람마냥 폭풍처럼 오신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의 불멸의 생애가 있어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강대

한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천땅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시며 천리길을 이어가신 사적내용과 압록강 배두의 칼바람마냥 폭풍처럼 오신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의 불멸의 생애가 있어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강대

한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천땅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시며 천리길을 이어가신 사적내용과 압록강 배두의 칼바람마냥 폭풍처럼 오신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의 불멸의 생애가 있어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강대

한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천땅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시며 천리길을 이어가신 사적내용과 압록강 배두의 칼바람마냥 폭풍처럼 오신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의 불멸의 생애가 있어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강대

한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천땅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시며 천리길을 이어가신 사적내용과 압록강 배두의 칼바람마냥 폭풍처럼 오신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의 불멸의 생애가 있어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강대

한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천땅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시며 천리길을 이어가신 사적내용과 압록강 배두의 칼바람마냥 폭풍처럼 오신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의 불멸의 생애가 있어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강대

한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천땅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시며 천리길을 이어가신 사적내용과 압록강 배두의 칼바람마냥 폭풍처럼 오신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의 불멸의 생애가 있어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강대

한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천땅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시며 천리길을 이어가신 사적내용과 압록강 배두의 칼바람마냥 폭풍처럼 오신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의 불멸의 생애가 있어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강대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여나가는 애국의 길에 펼쳐나서자

우리 생활, 우리 모습을 우리 식의 화법에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조선 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중산의 동음울은 대규모 전력생산기지이고 이웃하고있는 만수대창작사!

이웃의 전력생산기지에서는 중산의 거센인 습결이 맥박치고 있으나 이곳 창작사의 조선화창작단 창작실들은 물음 뿌린듯 조용했다. 숨소리마저 저어하게 되는 창작실들이지만 소리없는 열풍이 맴돌아왔다. 모든 창작실들이 드는 창작작품을 휩싸고있었다.

사색과 열정으로 심장을 끓이며 명작창작의 붓을 달려 부드럽고 섬세한 화법을 색채가 흘러넘치는 명화폭을 펼쳐가는 창작자들, 밝고 신명하고 부드러운 조선화의 특성과 우수성이 엮여있는 화풍들을 보느라 이 명작창작에 심혈을 기울여가는 그들의 창작열정이 심취되는 것 저도모르게 가슴 후두두울었다.

감동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창작단원인 장용남동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창작단

의 모든 창작자들이 천만군민을 비약창조로 불러일으키는 명작창작에 떨쳐나섰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백두산전설위인들의 은정이 깃들여있고 주제미술을 대표하는 우리 민족고유의 조선화를 창작하는 궁지가 참으로 크답니다.》

생각 깊어지게 하는 말이였다. 주제미술을 대표하는 조선화, 조용히 되뇌이거니와 해도 이곳 창작자들의 가슴가슴은 궁지와 자랑으로 한껏 부풀어오르고 있다.

조선화가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를 풍부하게 담고있으면서도 선명하고 간결하며 섬세한 화법으로 현실을 생동하게 그려내는 조선민족특유의 힘이고 아름답고 고상한 회화성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만이 아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다. 하지만 오늘 자기 고유의 이름을 가진 조선화와 같은 민족미술을 자랑하며 발전시키는 민족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민족성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며 활짝 꽃피워주는 우리 창작단원들은 유화보다 훨씬 앞서 창조된 조선화를 세상에 들도 없는 민족적재부로, 주제

미술을 대표하는 본보기로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은정속에 찬란한 개화기를 맞은 조선화를 창작한다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지난 기간 조선화창작단의 창작자들은 수많은 국보적인 조선화작품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단하다고, 대작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해주시던 대형그림 《울림목로의 가을》과 대형명품조선화 《백두산전지》의 216봉우리, 대형명품화 《금강산의 구룡폭포》와 같은 국보적인 대형조선화작품들과 수많은 우수한 조선화작품들을 창작한 창작단의 창작자들,

그들이 창작한 조선화작품을 보며 외국인들은 누구나 인간의 지향과 념원,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조선화의 황홀함에 매혹을 금할수 없다고,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는 주제성, 민족성이 강한 조선의 미술이야말로 세계가 따라 배워야 할 미술로 된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때마다 우리 창작단의 창작자들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진 조선화를 명실공히 우리의 것, 조선민족고유의 회화형식으

로 발전완성시켜주신 미술의 현제이시며 자애로운 스승이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굽을 적시곤 하였습니니다.》

뜨거움에 젖은 장용남동무의 목소리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가슴깊이 간직한 우리 것이 제일이라는 자부와 긍지, 조선화를 만방에 떨치려는 이들의 창작열기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보살피심속에서 더욱 높아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소화를 조선화로 더욱 훌륭히 형상화해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창작실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으며 조선화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는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창작자들의 창작적흥분과 열정을 비상히 분출시켰다.

고결한 총성과 함께 독창적인 미학사상, 비상한 예술적진품과 탐구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이곳 창작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재조각상을 인류문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로

운 조형예술형식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창작형상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지난해에도 이곳 창작자들은 《꽃은비 맞으시며》, 《보통강반의 겨울》, 《오늘도 백두밀림은 설레인다》 그리고 물고기대롱을 마련하여 황금해력사를 창조해가는 선구자들의 위훈과 광명을 생동하게 형상한 《(단풍) 호의 메아리》와 청천강을 전기강, 보배강으로 전변시켜보여주는 《청천강의 기적》, 세로지에서 천지개벽의 력사를 창조해가는 개척자들의 투쟁성과를 실감있게 그린 《세로등에 봄이 온다》를 비롯한 사상에술성이 높은 조선화작품들을 수없이 창작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운 조선화창작단의 창작자들, 우리의것을 제일로 사랑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조선화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우리 민족의 자랑 조선화를 세상에 더욱 빛내일 비장한 각오를 안고 펼쳐나선 그들의 왕성한 창작열기로 하여 창작실들은 소리없는 열풍속에 것처럼 뜨겁게 달아오른것이다.

본사기자 김지근

주제, 그 이름과 더불어 빛나는 자랑

대동강반의 주제사상탑

오늘도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새차게 떠오르는 주제사상탑의 불화!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건축물인 주제사상탑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은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으로 울린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남의 집에 있는 금덩이보다 제 집에 있는 쇠덩이가 더 소중하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는 비록 겉은 화려하고 번쩍거리지 않아도 자기의것이 제일이라는 뜻이 담겨져있다.

하다면 우리의것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킨것이다.

우리 식의 생활이 제일

우리 식은 곧 주제사상이며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

노래도 우리의 노래가 제일이고 인사법도 우리의 인사법이 제일이며 생활방식도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생활풍습이 반영된 우리의 생활방식이 제일이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하나같이 노래한다.

이국의 물가에 피어난 꽃도

주제사상탑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인간중심, 인간해방의 사상인 주제사상!

이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전투적기치로 높이 들고 곁함없이 전진하여왔기에 선군조선의 빛나는 어제와 오늘이 있고 희망찬 래일이 있는것이다.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인간중심, 인간해방의 사상인 주제사상! 이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전투적기치로 높이 들고 곁함없이 전진하여왔기에 선군조선의 빛나는 어제와 오늘이 있고 희망찬 래일이 있는것이다.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인간중심, 인간해방의 사상인 주제사상! 이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전투적기치로 높이 들고 곁함없이 전진하여왔기에 선군조선의 빛나는 어제와 오늘이 있고 희망찬 래일이 있는것이다.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시하시고 발전공부하신 주제사상을 연구하는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지구상의 그 어느곳에서 그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언제나 제정신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살아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정신적재부, 주제사상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중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

철도 섬유도 비료도 우리의것

애국은 주제이고 주제는 애국이다. 그래서 우리에는 애국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들에 주제가 말을 붙여 부른다.

철도 주제철, 비료도 주제비료, 섬유도 주제섬유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문명을 자랑하며 창공높이 솟아오른 기념비적건축물들과 무연하

자기 가정보다 조국과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를 위하여!》라는 구호이며 모두가 서로 돕고 이룩해나가는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미풍이 아니라, 이 땅에만 있는 우리의 생활이기에 우리는 노래한다.

...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은 본사기자 홍성철

게 펼쳐진 CNC기계바다,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는 공장들과 파이프라인 넘치는 무릉도원들...

이 모든것이 바로 주제이고 우리의것이 아니라. 남의것이 아닌 우리의것이어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것이 그토록 소중한것이다.

자기 가정보다 조국과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를 위하여!》라는 구호이며 모두가 서로 돕고 이룩해나가는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미풍이 아니라, 이 땅에만 있는 우리의 생활이기에 우리는 노래한다.

...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은 본사기자 홍성철

높은 자존심, 뛰어난 슬기의 결정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 나라에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나가는 애국헌신의 기풍이 차넘치기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평양기계대학 교원, 연구자들이 완전한 우리의 기술, 우리의 실비로 양말생산의 중요공정을 현대화하였다.

당당히 우리의것이라고 할수 있는, 성공업무에서 제노라하는 나라들에도 없는 자동양말꽃는기계를 만들어냈던것이다.

염색공정에서 나온 양말을 열처리공정에 넘기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제품을 양말본에 띄워야 한다.

이 공정만은 손로동으로 하고 있는것이 세계 양말생산부분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평양기계대학 교원, 연구자들이 도전한것은 두해전이었다.

평양양말공장을 찾으면서 여한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어로는 영상을 우러르며 자신들도 그 연구사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리는 우리의 것,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내고 싶었다.

하여 그들이 내세운 목표가 바로 세계최고로 만들어본적이 없는 자동양말꽃는기계가였다.

목표는 높았으나 쉬운 일이 아니였다. 열핏 생각해도 설비의 제작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기때문이었다. 우리 힘과 기술로 꽤 해내겠는가고 단신반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의 기계설계연구소 소장 최동일, 연구사 라승일, 김병성, 기계생산공학부 강좌장 윤철호동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자들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데는 곧 우리의 목표이며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높은 민족적자존심, 과학기술적 잠재력이 있는 한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이런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그들은 미지의 과학탐구세계로 서슴없이 뛰어들었다.

가장 합리적이고 리상적인 설계를 위해 온 연구진단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였고 설계에 따른 설비제작을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완성하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였다.

설비의 심장부라고 같은 어느 한 부분공가공이 제기되었을 때였다. 그것은 최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어려운 과제인데다가 우리 나라 기계제작부문에서 한 번도 겪어본적이 없는 것이였다.

일부 사람들이 그 부분공만은 다른 나라에서 해결해오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심장부를 남의것으로 해결한다면 그것을 당당히 우리 것이라고 말할수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힘과 지혜, 우리의 기술로 만들자는것이 그들의 드림없는 자세였고 의지였다.

공장에 파견된 연구진단만이 아닌 온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이 떨쳐나섰다.

집단의 지혜와 힘은 컸다. 기발한 착상과 합리적인 가공방법들이 쏟아져나오고 드디어 그처럼 어렵게만 생각되던 부분공이 훌륭히 완성되는 기적적인 성과가 이룩되었다.

지난해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드디어 조선지식인들의 높은 자존심, 뛰어난 슬기의 결정체인 자동양말꽃는기계의 시운전이 진행되었다.

성공이었다.

서로서로 환성을 올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교원, 연구자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끓어올랐다. 기계공업부문에서 또 하나의 청산을 돌파한 궁지와 자부심이 가득 차올랐던것이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는 자동양말꽃는기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것, 조선의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리남호

조선의 국보를 더욱 빛내여가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 사회에 민족적정서와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기풍이 차넘치기 하며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격화, 전면민적책무사업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

이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참으로 시대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주옥같은 명품로 깊이 새겨진 된다.

돌이켜보면 21세기를 창조해 나가는 민족의 우수성과 전통을 고수하고 자기의것을 더욱 빛내여나가는 문제가 나라와 민족들의 생사존망, 장래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것은 일찌기였다.

남의것을 그대로 받아들인것에 민족적인 우수한 전통과 풍습이 사라져가고있는것은 물론 문화유산과 경제생활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는 나라들의 비참한 현실은 얼마나 많은것을 생각해게 하는가.

진정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것이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의 현실을 통하여 찾게 되는 심각한 교훈이다.

자기의것이란 곧 자기 인민의 것, 민족의 것이다.

문화유산과 경제생활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는 나라들의 비참한 현실은 얼마나 많은것을 생각해게 하는가.

진정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것이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의 현실을 통하여 찾게 되는 심각한 교훈이다.

자기의것이란 곧 자기 인민의 것, 민족의 것이다.

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온 우리 인민에게는 자랑할 만 한 우리 민족의것, 우수한 정신문화유산보호가 참으로 많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것처럼 우리 민족은 세계최초의 철강공과 금속활자를 만든 문명하고 슬기로운 민족이며 인류문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리리를 사랑하며 근면하고 말과를 귀중히 여기고 메질이 밝은 겸손한 품성을 지니고있다.

대대로 한강도에서 한피줄을 이어온 우리 민족처럼 하나의 언어로 류창하게 말하고 아름답고도 풍만한 문화전통과 미풍양속을 편면히 꽃피워온 인민은 세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찾아보기 힘들다. 하기에 우리 민족을 참관하는 외국인들은 전 시된 역사유물들을 돌아보고나서 《조선의 력사는 위대하다.》 조선의 인민은 위대하다. 조선의 미래는 더 위대하다.》고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는것이였다.

위대한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아래 우리의것, 민족성이 더욱 꽃피는 이 땅은 얼마나 환희로운것인가.

무엇을 하나 일떠세워도 주제성과 민족성이 살아남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무엇을 하나 창조해도 우리의 빛과 기상이

스민 최첨단수준으로!

우주를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른 인공지구위성이며 주제철과 주제비료, 주제섬유의 장대한 흐름, 온 나라에 울리치는 우리의식의 거창한 CNC바람이 회전전선의 눈부신 기적, 세월을 주름잡으며 자기의 모습을 거변히 드러낸 마시펄스기중과 객콕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며 이 땅에 더욱 새차게 물아지는 문명바람은 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의것을 더욱 빛내여가리 위한 벅찬 투쟁속에서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 아니겠는가.

진정 세상을 둘러보아도 흥겨운 우리의 민요가락이 제일이고 자기의 장단에 맞추어 추는 우리의 춤이 제일이며 우리의 민족음식, 우리의 민족놀이, 우리의 멋에 사는 아름다운 우리의 생활이 제일이다.

우리 박물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여나가는 것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민족문화유산들을 나라의 만민재부로, 국보로 더 잘 관리하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우리의것이 제일이라는 궁지와 자부심이 넘쳐나도록 하겠다.

조선중앙일보사박관관장 어해룡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계급교양이다

새삼스럽게 되새겨보아야 할 일이다. 편지 이야기이다.

아마도 우리처럼 편지를 많이 받아보는 사람들은 드물것이다. 하루에도 여러통 지어 10여통의 편지를 받을 때도 있다.

무슨 편지인가?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을 소개해달라는 전국각지의 독자들이 보내는 편지이다.

얼굴은 서로 본적이 없어도 글줄마다에 넘치는 정과 사랑으로 마음도 무뎠을 줄기워지는 편지.

《안녕하십니까?》, 《꼭 소개해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성과를 바랍니다.》 등 친근한 말투로 띄어진 편지의 내용은 길지 않지만 그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문화적소양, 민족성을 다스느릴수 있다.

순간에 정이 통하고 부드러우며 그 의미가 특특하게 안겨오는 우리 글과 말, 감정과 정서, 사랑과 배의법질을 풍부한 어휘와 성구, 속담들로 훌륭히 나타내는 우리 언어는 그 우수성으로 하여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을 꽃피이게 해주어주고있다.

우리가 굳이 편지이야기를 빌어 우리의 민족성을 논하게 되는것은 민족의 귀중한 문화적재부인 언어가 사라져가고있는 남조선의 현실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상에 대해

제것이 사멸되어가는 땅, 미래가 없는 암흑사회

더 특특히 되새겨보자는 의미에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는 민족의 기본표집의 오토티어 언어생활은 민족문화와 발전시키고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인간생활에서 언어는 사람들 사이의 기본관계수단이다. 언어가 통해야 뜻이 통하고 정이 통한다. 그래서 우리 겨레가 오랜 세월 외세에 의한 민족분열의 비극속에 살아왔어도 만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감정과 뜻이 통하는것이 아닌가. 언어가 같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어는 어휘와 발음이 풍부할뿐 아니라 표현이 섬세하고 다양하며 문법구조가 재미고 문체도 세련된 우수한 언어이다.

조선민족의 넉이 깃들여있고 풍부한 생활감정과 정서, 다정다감한 우리 인민의 문화전통이 살아맥박치는 고유한 우리 말, 민족을 특징짓는 우리 말이 세월이 흘러도 만민이 변하고 세대가 바뀐다고 결코 달라질수 있었는가. 절대로 그럴수 없다.

그러나 남조선명에서는 아름다움의 우리 말이 잠랑랑로 변하고있으며 외세에 의해 찌라져나가고있다.

어려서부터 우리 말보다 먼저

영어로 습득되어야 하는것이 남조선의 현실이다.

조선어문법에도 사전에도 없는 간략화되고 잠랑랑한 《통신언어》가 남조선사회에 범람하고있고 자음만으로 된 간략화된 말이 무수히 생겨나고있으며 우리 말에 영어와 수사를 뒤섞어놓은 단어들이 마구 만들어져서 있다. 말할 때에도 외어를 섞어가며 말하며 《유식》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그러다보니 잠랑랑한 하는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 판이다.

조선말도 외세에 의한 잠랑랑한 말을 무언언어고 해졌는가. 이 언어언어가 남조선에서는 컴퓨터와 손전화기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가고있다.

인간의 건전한 피를 타고온 일부 어른들은 시대어감을 익힌다고 하면서 청소년들에게서 새로 만든 낱말을 배우까지 한다고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비속어와 새로 만든 낱말 때문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언어는 통역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있다.

웃지 못할 희극이다. 조선사람이 조선말을 통역하여 듣지 않는데도 말하고 인간성이 발달되는 이런 현실이 남조선에서 펼쳐지고있는것인가.

주제성이 없이 남의 장단에 춤을 추고 침략자의 폭주각시들을 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장본인이며 남조선사회 그 자체에 근본원인이 있다.

세계 되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없다.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남조선에 쏟아진 외세어와 잠랑랑, 그것은 력사적으로 보면 이거는 우리의 민족성을 해치고있는 사람들과 특히 세세대들이 정신상태를 점검하고 그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들고있다.

조선민족의 얼, 민족어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어제오늘에 시작될 일이 아니다.

해방전 총칼도 교수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민족의 넋을 지키기 위하여 활동한 조선어학회의 지성인들은 우리는 오늘도 잊지 않고있다. 온 나라 강토를 일제에게 빼앗긴 식민지통치시기에 우리 인민은 우리 말과 글을 지켰다.

그런데 지성과 문명을 지향하는 세 세기에도 여전히 남조선에서 민족어가 말살되고있는것은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현대판식민지정에서는 어쩔수 없는것이였다.

제것이 사멸되어가는 땅, 미래가 없는 암흑사회-남조선, 장본인은 누구인가. 어째서 민족의 얼이 빼앗기고 인간성이 발달되는 이런 현실이 남조선에서 펼쳐지고있는것인가.

주제성이 없이 남의 장단에 춤을 추고 침략자의 폭주각시들을 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장본인이며 남조선사회 그 자체에 근본원인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애국헌신의 기풍이 차넘치기 하며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격화, 전면민적책무사업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의것! 우리 문화, 우리 력사, 우리의 민족전통이다. 우리 손으로 이 땅 위에 건설한 모든 재부들이다.

오늘 미래를 비롯한 계급주의자들은 우리 내부에 썩어빠진 부르주아사대문화를 침투시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우리의 건전한 민족어를 흐리게 하는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류트시켜 우리의 사상전진을 허물고 나아가서 사회주의전위들을 빼앗으려고 미처남는 계급주의자들의 용용한 침략행동의 한 고리가 바로 민족어말살책동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어를 이질화시켜보려는 적들의 책동은 결코 통할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계급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행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이 땅위에 우리의것, 조선의것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조하고 빛내여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강성국가로 기어올라 건설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오은별

반미교양을 힘있게

전선군을 남새전문협동농장 초급당위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반미계급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보여주는 사진, 그림책, 전설자료들을 수없이 수집하여 계급교양실을 잘 꾸려놓고 참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실물교양자료물 계속 발굴수집하여 계급교양

실에 진렬하고있으며 체형자, 목격자들과 그의 후손들이 직접 출연하는 해설모임도 자주 조직하고 해설강사들의 수준을 높여주어 계급교양사업이 높은 감동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진행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당, 근로단체일군들과 선동원들이 최근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압살책동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렬하게 벌어지고있는가를 보여주는 당

보의 자료들을 적극 리용하여 아첨독보시건에 해설사업을 정상적으로 활발히 벌리도록 하고있다.

지금 이국 농장의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미제와의 판가리결사전에서 기어이 승리자가 될 철성의 의지를 안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를 굳건히 지키기라는 높은 열의에 당면한 영웅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가고있다.

장정철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구장군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